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1995, Vol. 5, No. 1, pp. 33~36

<토론1>

“영재성과 영재교육의 개념 : 피라미드모델”에 대한 토론

김 언 주

(충남대학교)

우선 저같이 둔재이거나 평재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영재에 관련된 훌륭한 글을 읽고 토론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발표자인 조석희 박사님은 평소 영재교육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근 몇년간 꾸준히 연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해 온 학자로서, 아마도 영재교육 분야에서만은 이분의 정열을 능가할 분이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조박사의 옥고를 토론할 수 있음은 본인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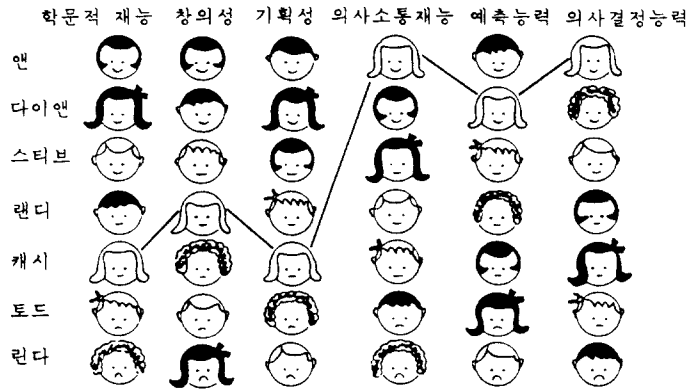
조박사님은 서론 부분에서 영재성의 정의가 현실점에서 왜 필요한지를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교육 상황에서 속진제가 도입되도록 되어있는바, 누가 속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 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청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재성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매우 기본적인 일입니다. 발표자는 이점을 매우 설득력있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박사님은 영재성의 정의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아주 간결하게 잘 요약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문부성의 정의(일반적 지적능력, 특정 교과에 대한 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지도능력, 예능계능력, 운동신경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그들이 자아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정규학교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특수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로 한다고 전문가에 의한 판단된 자), 렌즐리의 정의(giftedness as a combination of three basic characteristics above-average general ability, a high level

of task commitment or motivation to achive in certain areas, and a high level of creativity)등이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타넨바움의 정의, 필더슨의 정의, 하워드 가드너의 정의, 스텐버그의 정의, 프랑스와 가드너의 정의 등을 두루 섭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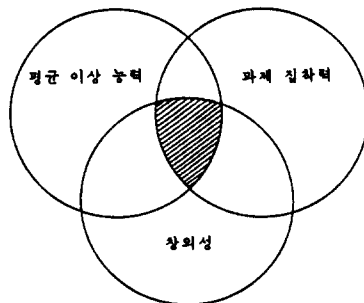
토론자는 조박사님에게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재성에 관한 더 많은 학자들의 견해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컨데 TAYLOR의 MULTIPLE-TALENT TOTEM POLES MODEL(그림1 참조)이나 LAMKINS의 모델(그림2 참조)등이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영재성 개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REVIEW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지금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림 1> Taylor의 토템 기둥 모형



자료 : Davis, G., & Rimm, S.,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985, p. 13. 이군현(1988) 영재교육학, p. 12 재인용

<그림 2> Renzulli의 영재구성 개념 모형



자료 : Davis, G., & Rimm, S.,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85. 이군현(1988) 영재교육학, p. 13 재인용

조박사님은 여러학자들의 정의를 근거로 영재성에 관하여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조박사님의 원고에서 백미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조박사님은 영재의 특성을 영재성, 개인적, 비지적 특성, 환경요인, 특수재능, 학습(훈련 연습)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재성이란 타고난 인간의 능력 혹은 적성을 가리키며, 유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자연적 성숙과 함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 능력은 언어, 수논리, 신체, 사회정서, 음악, 미술, 내적 통찰, 창의성 분야 등 8개의 분야에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비지적 특성으로는 과제집착력, 호기심, 흥미, 관심, 내재적 동기, 독립심들을 주요 특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요인으로는 의미있는 사람, 물리적 환경, 교육, 개인적 결정적 경험, 행운등을 주 요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수재능은 계발된 능력으로서 각 학문분야나 예술분야 등에서 나타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재성의 발달은 자연적 성숙, 일상생활에서의 지식과 기능활용, 비공식적 훈련과 연습, 공식적 훈련 등으로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보면서, 앞의 두 과정은 영재성 계발에 공헌하고, 뒤의 두 과정은 특수 재능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박사님의 주장은 여러가지 이론적.실제적 논의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모델은 영재성은 타고나 적성으로 해석하고 특수재능을 계발된 능력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영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영재성의 유전적 측면과 환경적(교육적)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와 교육적 처지의 가능성까지도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재성의 발현을 자연적 성숙측면에서, 그리고 특수재능의 발휘를 훈련의 측면에서 다룬 점은 향후 영재성의 발견과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고 봅니다. 또한 과제집착력과 같은 성격적 특성을 영재성이나 특수재능과 구별하여 그들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관련 변인으로 해석한 점도 매우 독특하다고 봅니다.

한편, 토론자는 조박사님에게 몇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재성을 타고난 능력(적성)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적성(타고난 능력)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학습이론가인 CARROLL 은 적성은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량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받아들인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번째 의문은 어떤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것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계발된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요? 세째, 기존의 적성검사에 의해 조박사님이 주장하는 영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측정될 수 있다면 측정된 능력

의 어디까지가 타고난 것이며 어디까지가 계발된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요?

조박사님의 영재성의 판별과 영재교육에의 시사점에 관한 글 중에서, “많은 사람은 누가 영재인가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나, 영재성과 특수 재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주장과 “사람들은 한번 영재이면 영원한 영재이다”라는 주장은 매우 신선한 비판인듯 합니다. 또한 “어릴때는 타고난 능력을 기준으로 판별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계발된 능력을 중심으로 영재성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판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매우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비판을 학령전 교육, 국민학교교육, 중.고등학교교육, 대학교육과 관련지어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고견이 있으신지요?

조박사님은 끝으로 피라미드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박사가 영재교육에 관한 나름대로의 모델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델의 가치는 발표자가 주장한 대로 여러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재교육의 목표설정, 영재의 판별, 영재교육과정의 개발, 영재교육방법과 집단조직, 영재교육 성과의 추후지도 등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평소에 영재교육에 관련하여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몇가지 의문점을 조박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求知欲은 영재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요? 둘째, MATACOGNITION은 창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이런점을 고려할 때 MATACOGNITION은 영재성의 한 특성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으로,지각(PERCEPTION)특징도 영재성의 한 특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아무튼, 조박사님의 주옥같은 원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